

학부생 번역자는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중국어-한국어 파파고 기계번역을 중심으로*

김혜림
(울산대)

1. 서론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기계번역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계번역 결과물을 인간이 정해진 품질 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이하 ‘포스트에디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번역사가 포스트에디팅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번역교육도 포스트에디팅에 초점을 맞추며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Pym 2013; 신지선 2017). 현재 솔트룩스의 AI 번역사 교육 등 일부 언어서비스업체, 사기업, 사설 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시범적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에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8061967).

디팅 작업의 중요한 출발점인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포스트에디팅 교육과 관련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 국내 연구로는 윤미선, 김택민, 임진주, 홍승연(2018)과 김혜림(2022) 단 두 편이 검색되며, 각각 영어-한국어, 중국어-한국어 언어 쌍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 이 중 김혜림(2022)은 중국어-한국어 언어 쌍에서 처음 시도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연구로서 학부 번역 교육 맥락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의미가 있으나, 학생들의 포스트에디팅 결과물과 중국어-한국어 기계번역 오류를 중심으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의 ‘무엇’을 수정할지만 탐구하고, 학생들이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어-한국어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한 학부생을 대상으로 회고 인터뷰를 진행하여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의 세부항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3장에서 연구 참여자, 자료수집, 회고 인터뷰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이어 4장에서 회고 인터뷰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국어-한국어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의 수정사항을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논한다.

2.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연구

포스트에디팅 작업에서 무엇을 수정하고 어떤 수준의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지를 규정하는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은 필수적이다. 국외에서 다양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실무 차원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연구를 다루고 있다 (Densmer 2014; Hu and Cadwell 2016; Mesa-Lao 2013; O’Brien 2010; Pérez 2012; 박건영 2021; 이주리에 2019; 한현희 2019). 포스트에디팅 수요가 증가하면서 포스트에디팅 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으나, 포스트에디팅 교육에 초점을 둔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교육 관련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선행연구(Flanagan and Christensen 2014; 김혜림 2022; 윤미선 외 2018)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플라나간과 크리스텐센(Flanagan and Christensen 2014)은 학생들이 실무에 사용하는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석사과정생에게 TAUS(2010)의 ‘출판 가능한(publishable)’ 수준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덴마크어-영어 포스트에디팅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후, 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회고 인터뷰(retrospective interview)를 실시하여 TAUS(2010)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분석하였다. 포스트에디팅 텍스트는 의료 텍스트였으며, 학생들은 포스트에디팅 과제와 함께 포스트에디팅 과정과 소감을 적은 성찰 일지(reflective report)를 제출하였다. 회고 인터뷰는 과제 제출 3주 후 반구조화(semi-structured)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플라나간과 크리스텐센(Flanagan and Christensen 2014)은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출판 가능한 수준’의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1) 기계번역 결과물을 최대한 활용한다, (2) 목표독자가 목표텍스트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도록 한다, (3) 목표텍스트가 원천텍스트와 동일한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4) 목표텍스트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단, 글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문장 재구성을 해서는 안 된다, (5) 목표텍스트는 문법적, 통사적, 의미적으로 정확해야 한다, (6) 전문용어는 정확하게 번역되어야 한다, (7) 번역할 필요가 없는 용어는 확인한다, (8) 목표독자에게 부적절 하거나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은 수정해야 한다, (9) 구두법과 맞춤법 등 기본 규칙을 준수한다, (10) 원천텍스트 형식을 유지한다 등 10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윤미선 외(2018)는 연구방법 측면에서 플라나간과 크리스텐센(Flanagan and Christensen 2014)과 유사하다. 석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영어-한국어 포스트에디팅 과제를 하면서 포스트에디팅 과정에서 느낀 점을 코멘터리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회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만, TAUS(2010) 가이드라인이 아닌 서구권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비교한 후 조작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수업에 활용하였다. 또한, 플라나간과 크리스텐센(Flanagan and Christensen 2014)이 출판 가능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달리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LPE(Light Post-Editing)와 인간 번역과 같은 FPE(Full Post-Editing)를 구분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기계번역 엔진은 구글(Google)이며 포스트에디팅 텍스트는 매뉴얼을 사용하였고, 회고 인터뷰는 과제 제출 1주 후 반구조화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이후 포스트에디팅 코멘터리, 회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영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과 예시(2018)’를 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 항목은 크게 대 항목 3개(의미, 언어와 문법, 구조)와 세부 항목 9개(정확성, 완결성, 일관성, 어휘, 통사구조, 맞춤법, 문장부호, 문체, 형식)로 구성되었으며, 추상적인 항목을 상단에, 구체적인 항목들을 하단에 배치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각 항목에 대한 예시를 추가하였고, 포스트에디팅 유의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표 상단에 다섯 가지 포스트에디팅 수행 지침사항(introductory paragraph)을 추가하였다.

김혜림(2022)은 학부생 21명을 대상으로 중국어-한국어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하도록 한 후, 포스트에디팅 과제물을 검토하여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에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고찰하였다.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은 중국어-한국어 언어 쌍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언어 쌍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한국어 기계번역문 포스트에디팅을 다룬 윤미선 외(2018)의 영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였다. 기계번역 엔진은 네이버 파파고(Naver Papago)이며, 포스트에디팅 텍스트는 보고서와 연설문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어휘, 통사구조, 문장부호, 문체 등 4개 항목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중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과 예시를 제시하였다. 김혜림(2022)의 연구는 플라나간과 크리스텐센(Flanagan and Christensen 2014), 윤미선 외(2018)와 달리 회고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고 학생들이 제출한 포스트에디팅 결과물만을 분석하였으며,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인식 문제를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부생에게 김혜림(2022)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보고서와 연설문에 대한 중국어-한국어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하도록 한 후, 회고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가이드라인 각 항목을 어떻게 이해하며 적용하였는지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 측면에서 플라나간과 크리스텐센(Flanagan and

Christensen 2014), 윤미선 외(2018)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영어 등 서구권 언어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달리 언어유형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중국어-한국어 언어 쌍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다룬다. 둘째, 플라나간과 크리스텐센(Flanagan and Christensen 2014)과 윤미선 외(2018)는 출판가능한 정도의 번역물을 생산할 수 있는 석사과정생을 실험 참여자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충분한 번역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플라나간과 크리스텐센(Flanagan and Christensen 2014)과 윤미선 외(2018)는 각각 의료 텍스트와 매뉴얼이라는 정보적 텍스트를 분석하여 포스트에디팅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는 정보적 텍스트인 보고서뿐 아니라 설득적 텍스트인 연설문을 분석하여 서로 다른 텍스트 유형의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요소를 살펴본다.

3. 분석방법

3.1 참여자 정보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22년 2학기 ‘중국어통번역연습’ 4학년 학부 전공수업 수강생이다. 참여자 전원의 제1언어는 한국어이다. 참여자 배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모두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으며, 기타 번역교육 경험으로는 수강생 중 1명만 1학기에 ‘중국어 통번역입문’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었다. 또한, 참여자 모두 포스트에디팅을 비롯한 제대로 된 번역 실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2.1 포스트에디팅 과제와 코멘터리

포스트에디팅 수업은 총 3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중국어통번역연습’은 번역과 통역을 모두 아우르는 수업으로, 중간고사 이전 전반부는 번역 수업을 진행하고 중간고사 이후 후반부는 통역 수업을 진행하였다. 전반 총 7주 번역 수업 중 포스트에디팅 수업은 3주간 진행되었다. 첫째 주는 포스트에디팅 개념과

번역 업계의 포스트에디팅 활용 현황을 소개하고, 김혜림(2022)의 중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각 항목을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다. 이어지는 둘째 주와 셋째 주는 각각 보고서와 연설문에 대한 중국어-한국어 포스트에디팅 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보고서 텍스트는 2020년 중국정부에서 발간한 ‘에너지백서(新时代的中国能源发展)’이며, 연설문 텍스트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马云)의 ‘2020 와이탄(外滩) 금융 서밋 연설문’이다. 텍스트 분량은 중국어 원문 기준 각 640자 정도로 임의 추출하였으며, 기계번역문은 2022년 8월 7일 네이버 파파고(Naver Papago)를 활용하여 생성하였다. 온라인 범용 기계번역엔진 가운데 네이버 파파고를 선택한 이유는 김혜림(2022)의 중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이 파파고 기계번역문에 대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이고, 일반적인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용엔진 가운데 중한 번역에서는 구글이나 바이두(百度)에 비해 파파고에서 번역 오류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김혜림 2022: 289). 이 밖에, 학생들에게 번역브리프(Translation Brief)를 제공하여 번역 대상독자, 번역문의 용도 등 번역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번역 대상독자는 한국인 일반 성인독자이며, 보고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에 유의하고, 연설문은 설득적 기능과 수사적 효과에 주의하여 포스트에디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학생들은 포스트에디팅 과제와 함께 코멘터리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코멘터리는 MS Word 메모장을 활용하여 포스트에디팅을 한 부분이 가이드라인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적고, 수정을 한 이유, 수정 시 고민한 부분과 참고한 자료, 가이드라인 항목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이유 등을 간단히 작성하도록 하였다. 플라나간과 크리스텐센(Flanagan and Christensen 2014)과 윤미선 외(2018) 등 관련 선행연구 모두 학생들에게 포스트에디팅 과정과 소감을 코멘터리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코멘터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번역 과정을 성찰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순간적인 구두 발화로 진행되는 사고발화법(Think-Aloud Protocol)에서 놓칠 수 있는 번역 과정을 고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García Álvarez 2007: 141). 플라나간과 크리스텐센(Flanagan and Christensen 2014)과 윤미선 외(2018)의 연구 참여자는 모두 석사과정생으로 성찰일지와 코멘터리를 적게는 2-3페이지, 많게는 10페이지 작성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는 학부생으로 그 정도 분량의 세밀한 코멘터리를 작성하도록

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MS Word 메모장에 두 세 문장으로 간단한 코멘터리를 적도록 하였다.

회고 인터뷰를 시행하기 전 코멘터리를 검토하여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가이드라인 항목을 도출하였다. 학생들은 가이드라인 적용방식에 편차를 보였는데, ‘정확성’ 등 의미 항목만을 기재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의미 항목은 거의 선택하지 않고 ‘통사구조’, ‘어휘’ 등 미시적인 항목만을 작성한 학생도 있었다. 김혜림(2022)의 중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은 윤미선 외(2018)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거시적인 항목(정확성, 일관성, 완결성)에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항목(어휘, 통사구조, 문장부호, 형식 등)으로 배열되어 있다. 첫째 주 수업에서 가이드라인 항목을 설명하면서 의미 항목이 거시적 개념이고 가이드라인 항목 기재 시 중복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학생마다 작성 방식을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코멘터리를 검토한 결과, 수정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이드라인 항목 설명과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한 오류에 대해 서로 다른 가이드라인 항목을 적용한 경우가 관찰되었다. 이를 보고서와 연설문 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코멘터리 기반 분석 결과

구분	보고서	연설문
설명과 항목 불일치	일관성, 어휘, 통사구조, 문장부호, 문체	일관성, 어휘, 문장부호, 문체
항목 혼란	문체-통사구조, 일관성-통사구조	일관성-문체

수정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이드라인 항목 설명과 불일치한 항목은 보고서와 연설문에서 모두 ‘일관성’, ‘어휘’, ‘문장부호’, ‘문체’로 나타났으며, 이들 항목이 학생들이 주요하게 이해하지 못한 항목임을 알 수 있었다. 보고서의 경우, ‘통사구조’는 설명과 항목 불일치 뿐 아니라, 항목 간 혼용된 사례도 관찰되어 ‘통사구조’에 대한 수정이 포스트에디팅의 주요 문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설문은 ‘문체’가 설명과 항목 불일치 외에 항목 간 혼용된 사례에서도 관찰되어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일관성’은 보고서, 연설문에서 모두 다른 항목과 혼용된 사례가 관찰되었으며 학생들이 일관성을 가장 중복되는 항목으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2 회고 인터뷰

회고 인터뷰는 마지막 포스트에디팅 과제 제출 후 2주가 지난 2022년 10월 27일과 11월 1일에 진행되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과제 제출 3주 후와 1주 후에 회고인터뷰를 시행한 점을 감안할 때, 2주가 지난 시점은 과제 수행 기억을 회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4명이며, 포스트에디팅 과제를 잘 수행하였거나 코멘터리 작성 분량이 많은 학생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자료의 연구 활용, 인터뷰 녹음, 비밀 유지와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인터뷰 일정을 수립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당 인터뷰가 수업 평가와는 무관함을 알리고, 가이드라인 해석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1명 당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1명 당 약 3만 원 정도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인터뷰는 모든 대상자에게 표준화된 질문을 동일한 질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구조화 인터뷰와 질문지 없이 자유롭게 면접자와 면접 대상자 간 상호작용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비구조화 인터뷰의 중간 단계인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문 주제는 코멘터리를 기반으로 도출한 <표 1> 항목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가 이었으며, 질문 순서는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되었다. 인터뷰 질문은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and Corbin 1998)이 제시한 깔때기 같은 접근(funnel-like approach)에 따라 폭넓은 개방형 질문으로부터 점점 구체적인 질문으로 탐색해나갔다. 먼저, “가이드라인 항목 중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라는 질문을 한 후, 인터뷰가 진행됨에 따라 “A항목이 B항목과 겹친다고 생각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와 같이 질문을 점점 구체화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본인이 작성한 포스트에디팅 과제와 코멘터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보이스 레코더로 녹음한 뒤 전사하였으며, 참여자 1인당 입력 분량은 A4 용지 15장 내외였다. 인터뷰 전사 자료는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항목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파악된 내용 중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에 설명되어 있지 않아 항목 분류가 어려운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4.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회고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항목 별 수정사항을 고찰한다.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이해할 때 항목 설명보다 예시를 상당히 많이 참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시를 90% 참고하였다고 답변한 학생이 있었으며, 항목을 왜 그렇게 이해했는지 질문에 대해 참여 학생 모두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의 예시를 근거로 설명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예시의 필요성이 보고된 바 있는데(윤미선 외 2018; 신지선 2020), 학부생들이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이해하는데 예시의 중요성은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코멘타리를 기반으로 도출한 <표 1>의 ‘일관성’, ‘어휘’, ‘통사구조’, ‘문장부호’, ‘문체’ 외에 ‘수행 지침사항’, ‘정확성’에 대해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에 관련 설명이 없어 어떤 항목에 속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수정 사항도 있었는데, 이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인터뷰 참여 학생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4명의 참여자는 각각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로 표기한다.

4.1 수행 지침사항

본 연구는 수업에서 김혜림(2022)의 중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과 함께 윤미선 외(2018)의 가이드라인 수행 지침사항을 함께 제시하였다. 수행 지침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1) 원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함, (2) 포스트에디팅 된 텍스트가 논리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아야 함, (3) 목표 텍스트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문장 재구성은 하지 않음, (4) 문법과 언어의 올바른 사용, (5) 구조적인 틀 최대한 유지의 다섯 가지이다. 회고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이들 지침이 서로 상충되거나 모호하다고 답변하였다. 학생 3은 “기계번역문을 논리적으로 수정하려면 재구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문장 재구성 하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수정을 하라는 것인지 머리가 아팠다”며, 수행 지침사항 (2)번과 (3)번이 상충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학생 2는 “과파고 번역문을 보면 한국어로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수정할 경우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바꾼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바꾼 건지 조금 혼란스러웠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목표텍스트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재구성’이 어떠한 정도 수정인지 학생들이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포스트에디팅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포스트에디팅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겪게 되는 어려움인데(명선혜 2020: 51), 본 연구의 참여자는 포스트에디팅뿐 아니라 번역 실무경험이 전무한 학부생으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더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수행지침 중 (3)번 사항은 학생들이 수정 범위 판단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5)번 ‘구조적인 틀 최대 유지’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4.2 정확성

정확성은 어휘의 정확성, 정보의 정확성 등이 담보되어야 획득할 수 있는 상위의 개념이다. 이러한 정확성의 포괄적 특징으로 인해, 코멘터리 작성 시 수정사항 대부분을 정확성으로 표기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정확성을 거의 적지 않은 학생도 있었다. <표 1> 항목 불일치, 항목 혼란 카테고리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확성 해석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4명 모두 정확성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른 항목들과 많이 겹치는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의미 항목 중 완결성은 누락/추가, 일관성은 용어의 통일성 등으로 차별되나, 정확성은 어휘 또는 통사구조와 중복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성이 가이드라인에 독립된 항목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코멘터리에 정확성을 거의 적지 않은 학생 2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으나, 나머지 세 학생은 정확성 항목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였다. 그 이유로 학생 3은 “의미로 봤을 때와 문법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나뉘도 될 것 같다”고 하였고, 학생 4는 “좀 애매한 게 있을 때가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생 1은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는데, “원문과 기계번역문, 기계번역문과 포스트에디팅 결과를 비교할 때 적용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며, 아예 정확성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미 항목이 있는 것이 맞다”고 답하였다. 학생들의 답변이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정확성이 어휘나 통사구조 수정과 다른 점이 있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정확성은 통사구조나 어휘 등과 별도로 제시 될 필요가 있으며, 비교의 준거점을 기준으로 구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정확성은 원문을 기준으로 하고, 통사구조나 어휘는 기계번역문을 기준으로 하는 포스트에디팅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계번역에서 중국어 복문을 단문 단위로 잘못 번역한 경우, 만약 기계번역문의 통사구조에 오류가 생겼다면 정확성 외에 통사구조에도 속하는 오류로 볼 수 있으나, 기계번역문 통사구조에 문제가 없다면 이는 정확성에만 속하는 오류가 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학부생들이 원문의 의미가 잘못 번역되었으나 기계번역문이 어색하지 않은 경우 포스트에디팅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만큼(이상빈 2017; 김혜림 2020), 가이드라인 항목에서 정확성은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단, 정확성 항목의 비교의 준거점이 원문임을 정확히 밝히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의 의미가 잘못 번역되었으나 기계번역문 자체는 어색하지 않은 예문을 포스트에디팅 예시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중국어-한국어 기계번역문에서 관찰된 시제 오류를 정확성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제가 있는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는 시제가 없는데, 중한 기계번역에서 시제가 잘못 번역되는 오류가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与各国一道寻求加快推进全球能源可持续发展新道路’의 기계번역문 ‘각국과 함께, 글로벌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문장성분 호응, 어휘 면에서 문제가 없으나, 원문의 맥락이 중국 에너지 발전 현황에 대한 소개이므로, ‘寻求’는 ‘모색한다’가 아닌 ‘모색하고 있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제 오류는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정확성 오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4.3 일관성

일관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고서와 연설문에서 모두 설명과 항목 불일치 사례가 관찰되었을 뿐 아니라, 보고서에서는 통사구조와 혼용되고, 연설문에서는 문체와 혼용되어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은 항목이었다. 또한, 정확성처럼 학생 간 코멘터리 작성에 편차를 보였는데, 일관성

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도 일관성으로 적는 등 과도하게 적용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거의 적지 않은 학생도 있었다.

최근 인터뷰에서 코멘터리에 일관성을 거의 적지 않은 학생 2는 일관성을 단어를 통일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언급하였다. 일관성은 가이드라인에 응결성과 용어의 통일성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어 있으나, 학생 2는 응결성 부분은 잘 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그 이유로 가이드라인 예시에 관련 예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김혜림(2022) 가이드라인 일관성 항목에는 반복되는 ‘战略’을 ‘전략’으로 통일하고, 마지막에 반복된 ‘战略’을 삭제한 후 접속사 ‘ 동시에’를 추가한 예문이 제시되었는데, 학생들이 해당 예문을 용어의 통일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일관성을 과도하게 사용한 학생 4는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보통 일관성으로 다 집어넣었다”며, “말이 안 되는 거를 일관성으로 본 것 같다”고 답하였다. 학생 3도 비슷하게 “어색한 것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을 일관성으로 이해하였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일관성에 대한 설명 ‘텍스트의 응결성을 고려하여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수정하고, 내용이 유기적이면서 논리적이도록 한다’에서 학생들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수정한다’ 문구만을 보고 일관성을 과도하게 확대해서 이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관성 설명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수정한다’를 삭제하고, 학생들이 일관성을 용어의 통일성 외에 응결성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사 사용, 접속사 추가 등 관련 예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4.4 어휘

김혜림(2022)은 중한 파과고 기계번역에서 동원기표소(同源记标素)가 한국 한자음 그대로 번역되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어휘 항목에 ‘동원기표소의 어휘 의미와 연어 사용이 올바르게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설명을 추가하였다. 동원기표소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동형성과 유음성의 특징을 가지는 어휘로, 상당수가 다른 어휘 의미나 연어 규칙을 가져 중한 번역 시 주의가 필요하다. 코멘터리를 검토한 결과, 학생들은 새로 추가된 동원기표소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 수 있었다. ‘主线’을 ‘주선’으로 번역

한 기계번역문을 ‘주요 노선’으로 수정하며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적거나, 동원기표소가 아닌 단순히 맥락상 잘못 번역된 어휘를 동원기표소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4명은 모두 동원기표소가 처음 보는 단어여서 잘 이해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동원기표소를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예시를 참고하여 “같은 말인데 의미가 많은 어휘”, “단어를 한국에서 많이 쓰는 비슷한 의미 단어로 바꾸는 것”, “자연스러운 맥락 어휘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하였다. 또한, 연어도 생소한 어휘여서 잘 이해되지 않았고 “이어지는 말” 정도로 이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동원기표소, 연어 등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에서 동원기표소를 ‘한국 한자음대로 번역된 중국어 어휘’, 연어를 ‘함께 자주 쓰이는 어휘’ 등과 같이 쉽게 풀어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학생들이 포스트에디팅은 적절하게 하면서도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가이드라인 항목을 잘못 표기한 사례가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학생 3은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어휘 항목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예시가 동원기표소와 겹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용어 관련 예시는 우주백서에 나오는 예문으로 ‘空间’에 대한 기계번역 ‘공간’을 ‘우주’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동원기표소 오류로 볼 수도 있는 항목이다. 중한 기계번역에서 동원기표소는 전문용어, 문화용어 등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오류인 만큼, 동원기표소가 다른 어휘 오류 유형과 독립적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 4는 어휘 항목 중 문화적 용어와 독자의 상황에 따른 수정이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예시에서 잘 구분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가이드라인 예시에서 문화적 용어는 ‘新常态’의 기계번역 ‘새로운 일상’을 ‘신창타이 新常态’ (중국판 뉴노멀로 불리는 중국경제의 새로운 상태)로 수정하고, 독자의 상황은 ‘两弹一星’의 기계번역 ”2탄 1성”을 “양탄일성(중국이 자력으로 개발한 원자폭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으로 수정하였다. ‘新常态’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신창타이’ 또는 ‘뉴노멀’로 수정해야 하고, ‘两弹一星’은 한국독자에게 생소한 용어이므로 부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新常态’ 포스트에디팅 예시에서도 부가 설명이 더해지면서 학생들이 보기에 비슷하게 느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부생들이 문화적 용어와 독자의 상황

에 따른 포스트에디팅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의 예시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4.5 통사구조

김혜림(2022)의 중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은 통사구조 항목에 ‘중국어 원문의 절과 절 사이의 논리관계가 적절한 한국어 연결표지(접속사, 연결어미 등)로 제시되어야 한다’를 추가하였다. 중국어의 의합(意合) 특징 상 연결표지 사용이 수의적인데, 이로 인해 중국어 복문의 논리관계가 기계번역에서 적절하지 않게 번역되는 사례가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회고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새롭게 추가된 위와 같은 통사구조 설명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은 통사구조와 일관성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통사구조에 대한 설명 ‘원문의 절과 절 사이의 논리관계가 적절한 한국어 연결표지로 제시되어야 한다’가 일관성 설명 ‘내용이 유기적이면서 논리적으로도 록 한다’와 중복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두 항목의 차이를 다른 세 학생에게도 물어본 결과, “비슷해 보인다”, “차이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논리’라는 용어가 서로 다른 두 항목 설명에 중복되면서 학생들이 혼란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일관성은 비교의 준거점이 기계번역문으로 원문의 논리관계가 적절히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과 차이가 있으나, 학생들이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학생 2는 통사구조의 논리관계를 원문이 아닌 기계번역문의 논리 관계로 보고 적용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통사구조 해석에 대한 혼란은 정확성 인터뷰에서 통사구조와 정확성이 중복되는 것 같다는 답변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정확성은 ‘원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로 기준점을 원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통사구조 항목에서도 ‘중국어 원문의 절과 절 사이의 논리관계가 적절한 한국어 연결표지로 제시되어야 한다’와 같이 원문이 기준점으로 언급되면서 두 항목 간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때, 통사구조 항목은 비교의 준거점을 기계번역문으로 놓고, ‘텍스트의 문장구조가 어색함이 없어야 한다’는 설명만 남겨놓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통사구조 설명 중 ‘중국어 원문의 절과 절 논리관계가 적절한 한국어

연결표지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기준점이 원문이라는 점에서 정확성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4.6 문장부호

문장부호에 대해 학생들은 기계번역문에 나타난 문장부호 오류가 아니라 포스트에디팅 과정에서 문장부호를 추가나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렇게 이해한 이유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의 예시를 들었는데, 중국어 원문의 모점(顿号、)이나 쌍반점(分号;)이 기계번역문에서 일괄적으로 반점(,)으로 번역되며 원문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모호해진 문제를 반점을 삭제하거나 온점으로 대체하며 수정하는 예문이 제시되었다. 김혜림(2022)은 모점 등 중국어 특유의 문장부호가 기계번역문에서 빈번하게 잘못 번역되었다며, 문장부호 항목에 '한국어에 없는 중국어 문장부호 용법에 주의하여 문장부호 등에 오류가 없어야 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비교의 준거점이 원문으로 제시되면서 해석에 혼란이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삭제하고 문장부호 역시 기준점을 기계번역문으로 하여 '한국어에 없는 중국어 문장부호 용법에 주의하여 문장부호 등에 오류가 없어야 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대신 기계번역문에서 관찰된 중국어 고유 문장부호가 한국어 반점으로 일괄 번역되며 원문의 의미가 왜곡되는 문제는 정확성 항목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4.7 문체

문체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적 텍스트와 설득적 텍스트 모두에서 수정 이유와 항목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관찰되었을 뿐 아니라, 통사구조, 일관성과 혼용되는 문체가 관찰되어 학생들이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이었다. 예를 들어, MT의 '것이다'를 '것이고'로 수정하며 '문체'로 표기 후 '문장이 여기서 마무리 되는 것보다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연결했습니다'와 같이 문체와 관련 없는 수정 이유를 적거나, 연설문 기계번역문 '나도'를 '저도'로 수정하면서 '문체'를 표기하였다가 동일한 오류인 '네가'를 '당신'으로 수정할 때는 '일관성'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문체를 어떻게 이해하였나는 인터뷰 질문에 대해, 학생 1은 “그냥 딱 봤을 때 말하는 투, 말투 같은 걸로 봤다”고 답하였으며, 학생 3은 “전체적인 문장의 어색함을 자연스럽게 하는 걸로 생각했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문체를 ‘말투’,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생각하며 일관성과 비슷하게 이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상기 일관성 인터뷰에서도 학생들이 일관성을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수정한다’는 문구만을 보고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 2는 문체를 “어말어미를 수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변하였으며, 학생 4는 “높임말로 많이 적용을 하였고, 그 외에는 잘 안 썼던 것 같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문체를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수정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거나, 항목 설명 중 ‘어말어미’, ‘경어법’ 등 지엽적 문구에 초점을 맞추어 축소 해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문체 항목 설명 중 언어사 용역에 대한 해석을 좁히는 ‘경어법’은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이 단편적인 어말어미 추가를 문체로 이해하지 않도록 언어사용역 또는 유사한 한국어 텍스트를 참고하여 어말어미를 수정한 다양한 예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4.8 기타

회고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에 관련 설명이 없어 학생들이 가이드라인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한 수정 사항이 있었다. 학생들은 포스트에디팅 과제와 코멘터리 작성 시에는 해당 수정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가 수업을 들은 후 의문이 생겼다고 말하였다.

먼저, 보고서 번역에서 정보적 텍스트의 특성 상 명확하고 빠짐없는 정보 전달이 중요한데, 반점(逗号) 또는 쌍반점(分号)으로 여러 동사가 나열된 중국어 복문이 기계번역에서 연결어미 ‘-고’ 또는 ‘-며’로 번역되며 정보전달 효과가 반감되는 사례가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全面推进能源消费方式变革, 构建多元清洁的能源供应体系, 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 不断深化能源体制改革, 持续推进能源领域国际合作’가 기계번역문에서 ‘에너지 소비 방식의 변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다원적이고 청정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을 실시하며, 에너지 체제 개혁을 끊임없이 심화하고, 지속적

으로 에너지 분야의 국제 협력을 추진하여'와 같이 하나의 긴 복문으로 번역되었다. 원문의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결어미를 적절히 종결어미 '-다'로 수정하여 가독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연설문 번역은 청중 설득을 위한 수사적 효과가 중요한데, 기계번역문에서 원문의 강조 표현이 삭제되며 화자 주장의 강도가 낮아지는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机会很多, 但是关键性的机会也就一两次, 现在就是到了最关键的时刻'가 기계번역문에서 '기회는 많지만 결정적인 기회는 한두 번이고 지금이 절호의 순간이다'로 번역되었다. 마지막 문장이 주장의 핵심인 만큼, '기회는 많지만 결정적인 기회는 한두 번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절호의 순간입니다'와 같이 독립된 문장으로 수정하고, 원문의 '就是'을 강조어 '바로'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就是'은 맥락에 따라 강조어 없이 '-이다'로 번역될 수도 있으나, 청중 설득이라는 연설문의 기능을 생각할 때 '바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상기 사항은 정보 전달과 청중 설득이라는 번역 텍스트의 기능을 고려한 수정 사항으로, 원문 의미의 정확성, 기계번역문의 통사구조나 어휘 사용 등에는 문제가 없어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의 '의미'나 '언어와 문법' 항목에는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어로 된 보고서와 연설문을 참고하여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항목 중 문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논의 및 맺음말

5.1 중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본 연구는 학부생에게 김혜림(2022)의 중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보고서와 연설문 텍스트에 대한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하도록 한 후, 포스트에디팅 코멘터리, 회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학부생들이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항목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였는지 심층 분석하고, 중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4장의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중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수정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행 지침사항 중 (3)번 ‘목표 텍스트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문장 재구성은 하지 않음’은 학생들이 어디까지 수정해야 하는지 혼란을 야기하고, (5)번 ‘구조적인 틀 최대 유지’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사구조와 문장부호 항목에서 비교의 준거점이 원문인 설명과 예시는 정확성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통사구조와 문장부호의 일부 설명이 원문을 기준으로 제시되면서 학생들이 정확성과 중복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사구조 항목 중 ‘중국어 원문의 절과 절 논리관계가 적절한 한국어 연결표지로 번역되어야 한다’와 문장부호의 ‘한국어에 없는 중국어 문장부호 용법에 주의하여 문장부호 등에 오류가 없어야 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를 정확성에 포함시키고, 통사구조와 문장부호 항목 설명의 기준점을 기계번역문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기계번역문에서 관찰된 시제 오류 또한 시제가 없는 중국어 원문의 맥락을 파악하여 수정해야 하는 만큼, 정확성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관성은 항목 설명 중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수정한다’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해당 문구에만 초점을 맞추어 일관성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일관성을 단순히 용어의 통일성으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지시사 사용, 접속사 추가 등 응결성을 고려하여 포스트에디팅한 예문을 가이드라인 예시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휘 항목에서 동원기표소 설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동원기표소, 연어 등 생소한 용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동원기표소와 기타 전문용어 등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동원기표소와 연어를 ‘한국 한자음대로 번역된 어휘’, ‘함께 자주 쓰이는 어휘’와 같이 쉽게 풀어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동원기표소 오류가 전문용어, 문화용어 등에 전반적으로 걸쳐 나오는 오류이므로, ‘한국 한자음대로 번역된 어휘가 맥락에 적합해야 하며, 함께 자주 쓰이는 어휘, 전문용어 등의 사용이 올바르게 제시되어야 한다’로 수정하여 독립적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문체 설명 중 언어사용역에 대한 해석을 좁히는 ‘경어법’을 삭제하고, 학생들이 단편적인 어말어미 추가나 경어법만을 문체로 이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 전달 또는 청중 설득이라는 번역 텍스트의 기능과 관련된 수정 사항 또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어로 된 보고서와 연설문을 참고하여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체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김혜림(2022)의 중한 포스트에디팅가이드라인과 예시를 수정하면 <표 2>, <표 3>과 같다. 예시는 본 연구의 포스트에디팅 텍스트로 활용한 중국정부 에너지 백서(新时代的中國能源發展)와 마윈(馬雲)의 2020 와이탄(外灘) 금융 서밋 연설문을 포스트에디팅한 결과이다. 상기 텍스트의 기계번역문을 검토한 결과, 가이드라인 항목에서 정확성중 중국어 문장부호 용법 왜곡, 문장부호, 형식은 관련 오류가 관찰되지 않아 포스트에디팅 예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계번역 엔진의 성능 향상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고, 분석 텍스트가 기존 가이드라인과 달라지면서 관찰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가이드라인 항목 설명에서 삭제하지는 않았으나, 추후 분석 텍스트 분량을 늘려 충분한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 항목 설명 중 수정된 부분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표 2> 수정된 중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항목	세부항목	가이드라인
의미 (Message)	정확성 (Accur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원문의 중국어 문장부호(頓號(、)) 등 용법에 주의하여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원문의 절과 절 사이의 논리관계가 적절한 한국어 연결표지로 제시되어야 한다. 원문의 상황에 적절한 한국어 시제로 제시되어야 한다.
	완결성 (Complet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적으로 원문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추가해서는 안 된다.
	일관성 (Consist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텍스트 전체에서 용어나 표현 등이 통일성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텍스트의 응결성을 고려하여 내용이 유기적이면서 논리적이도록 한다.

언어와 문법 (Language & Grammar)	어휘 (Lex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락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 함께 자주 쓰이는 어휘, 관용구와 숙어, 문화적 용어 등의 사용이 올바르게 제시되어야 한다. • 해당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사용한다. •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목적과 상황을 고려한다. • 한국 한자음대로 번역된 어휘가 맥락에 적합해야 하며, 함께 자주 쓰이는 어휘, 전문용어 등 사용이 올바르게 제시되어야 한다.
	통사구조 (Syn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의 사용과 문장성분 호응이 올바르게 제시되어야 하는 등 문장 구조에 어색함이 없어야 한다.
	맞춤법 (Spel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탈자가 없고 띄어쓰기가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문장부호 (Punct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부호 등에 오류가 없어야 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구조 (Structure)	문체 (Sty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사용역(register)에 적합한 문체를 사용해야 한다. • 보고서는 명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연체 문장을 간결체로 수정한다. • 연설문은 독자 설득을 위한 강조, 반복 등 수사적 효과에 유의하여야 한다. • 한국어로 된 유사한 텍스트에서 쓰이는 표현이나 어말어미로 수정한다.
	형식 (For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여쓰기, 여백, 제목 및 소제목 설정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폰트, 글자크기, 볼드체, 밑줄설정, 각주, 목차, 괄호사용 등을 원문과 비교하여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한다.

〈표 3〉 수정된 중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예시

세부항목	ST	MT	PE
정확성 (Accuracy)	(원문 절과 절의 논리관계) 可能不成熟, 讲得不对, 贻笑大方, 大家估且一听:	미숙할 수도 있고,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 모두들 생각해 보고 들어보시오.	미숙할 수도 있고,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지만,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상황에 적절한 시제) 各国一道寻求加快推进全球能源可持续发展新道路。	각국과 함께, 글로벌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각국과 함께 글로벌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완결성 (Completeness)	(누락) 成为世界上最大的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 소비국과 에너지 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소비국이자 에너지

	能源生产消费国和能源利用效率提升最快的国家	용 효율이 가장 빠른 나라가 되었다.	이용 효율이 가장 빠르게 향상된 나라가 되었다.
	(추가) 所以我想我还是要讲一讲我自己的一些 想法	그래서 제 생각, 제 생각, 제 생각, 제 생각 중 일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관성 (Consistency)	(통일성) 以推动 高质量 发展为主题, (중략) 中国能源进入 高质量 发展新阶段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주제로 (중략) 중국의 에너지는 질 높은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주제로 하며 (중략) 중국의 에너지는 질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응결성) 问题不是怎么样不犯错误, 而是 犯了错误之后能不能完善修正, 坚持 创新 .	문제는 어떻게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 . 그러나 실수를 한 후에 완전히 수정하고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한 후에 완전히 수정하고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휘 (Lexis)	(맥락) 现在就是到了最 关键 的时刻。	지금 절호의 순간 이다.	지금 바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함께 자주 쓰는 어휘) 中国 适应 经济社会快速发展 需要	중국은 경제 사회의 급속한 발전 요구 에 적응 하여,	중국은 경제 사회의 급속한 발전 요구 에 부응 하여
	(문화적 용어1) 中共 十八大 以来	중공 18대 이래	중국공산당 제 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문화적 용어2) 习近平主席讲过“ 功成不必在我 ”	시진핑 “ 공은 나에 있을 필요가 없다 ”는 시 주석의 말은	시진핑 주석이 “ 공은 반드시 나에겐 있는 것이 아니다(功成不必在我) ”고 하신 말씀은
(전문용어) 有幸担任 联合国数字合作高级别小组联合主席 和 联合国可持续发展目标倡导者 期间, 跟全世界的学者、专家还有实践者 认真 探讨交流得出的。	운이 좋으면 유엔 디지털 협력 고위급 소조의 연합 의장 을 맡을 수 있다.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제창자 와 함께 전 세계의 학자, 전문가, 그리고 실천자들과 교류해 왔다.	운 좋게도 UN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 위원장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리더를 맡아 전 세계의 학자, 전문가 그리고 실천가들과 교류하며 얻은 결과입니다.	

	(독자의 상황) 习近平主席提出“四个革命、一个合作”能源安全新战略	시진핑 주석은 '4대 혁명, 1개 협력'이라는 에너지 안보 신전략을 제시하며	시진핑 주석은 '4대 혁명, 1개 협력(四个革命, 一个合作: 4개 혁명은 에너지 소비, 공급, 기술, 체제 혁명을 말하며, 1개 협력은 에너지 국제협력 강화를 말한다)'이라는 에너지안보 신전략을 제시하며
통사구조 (Syntax)	(불완전한 문장) 开辟了中国特色能源发展新道路	중국 특색을 개척했다. 에너지 발전의 새로운 길.	중국 특색 에너지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조사) 新中国成立以来, 在中国共产党领导下,	신중국을 성립된 이래, 중국에서 공산당이 영도하고 있다.	신중국 성립 이래, 중국 공산당의 지도 하에
	(명사형 어휘) 推动能源消费革命, 抑制不合理能源消费。	에너지소비혁명 추진, 불합리 억제 에너지 소비.	에너지 소비 혁명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한다.
맞춤법 (Spelling)	(띄어쓰기) 逐步建成较为完备的能源工业体系。改革开放以来,	점차 비교적 완전한 에너지 공업 체계를 건설하였다. 개혁 개방 이후,	점차 비교적 완벽한 에너지 산업 체계를 건설하였다. 개혁 개방 이후,
문체 (Style)	(보고서) 全面 推进 能源消费方式变革, 构建 多元清洁的能源供应体系, 实施 创新驱动发展战略, 不断 深化 能源体制改革,	에너지 소비방식의 변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다원적이고 청정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혁신 주도 발전전략을 실시하며, 에너지 체제 개혁을 끊임없이 심화하며,	에너지 소비 방식의 변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다원화된 청정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 주도형 발전 전략을 실시하였다.
	(연설문) 今天要不要来讲, 坦白说 我 也很纠结。	오늘 얘기할까 말까 솔직히 나 도 고민이야.	오늘 강연을 할까 말까 솔직히 저 도 고민했습니다.
	(연설문) 其实 监 和 管 是两件事,	사실 감 과 관 은 두 가지 일이다.	사실 감독 과 관리 는 별개의 일입니다.
	(연설문)	기회는 많지만 결정적	발전의 기회는 많지만,

发展机会很多，但是关键性的机会只有一两次， 现在就是到了最关键的时刻。	인 기회는 한두 번이고 지금이 절호의 순간이다.	결정적인 기회는 한두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	----------------------------	--

5.2 연구의 한계 및 의의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은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장기간 관찰 및 다양한 사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작업으로, 본 연구와 같이 1개 학기 수업에서 한정된 분석 텍스트를 바탕으로 소수의 인터뷰를 통해 제안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제한된 분석 텍스트로 인해 보고서와 연설문 등 텍스트 유형에 따른 포스트에디팅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일부 가이드라인 항목에 충분한 예시를 추가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국어-한국어 관련 선행연구가 포스트에디팅 결과물만을 분석한 것과 달리, 회고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중국어-한국어 포스트에디팅 수업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사항을 고찰한 본 연구는 향후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수립, 포스트에디팅 교육 및 관련 연구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혜림 (2020) 「학부생 번역자의 중한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사례연구」, 『중국언어연구』 91: 383-414.
- 김혜림 (2022) 「중한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에 관한 예비연구—포스트에디팅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중국언어연구』 99: 277-311.
- 명선혜 (2020) 「전문 번역사의 MTPE 인식 전환 가능성 모색—아비투스 개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3): 37-62.

- 박건영 (2021) 「정보성 텍스트의 한영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제시 —신경망 기계번역 (NMT) 을 사용한 뉴스 기사문 번역의 사례」, 『번역학연구』 22(1): 109-137.
- 신지선 (2017) 「테크놀로지 패러다임에서의 번역능력 재조명」, 『통번역학연구』 21(4): 51-71.
- 신지선 (2020)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해외 연구 동향」, 『번역학연구』 21(4): 87-114.
- 윤미선, 김택민, 임진주, 홍승연 (2018) 「영어-한국어 언어쌍에 적합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번역학연구』 19(5): 43-76.
- 이상빈 (2017) 「학부번역전공자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통역과 번역』 19(3): 37-64.
- 이주리에 (2019) 「한일 헤드라인 번역의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고찰」, 『통역과 번역』 21(2): 119-144.
- 한현희 (2019) 「노한 기계번역의 프리에디팅(pre-editing) 및 포스트에디팅(post-editing) 가이드라인 제안」, 『노어노문학』 31(4): 65-96.
- Doherty, Stephen (2016) ‘The Impact of Translation Technologies on the Process and Product of Trans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0: 947-69.
- Flanagan, Marian and Tina Paulsen Christensen (2014) ‘Testing Post-editing Guidelines: How Translation Trainees Interpret Them and How to Tailor Them for Translator Training Purpose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8(2): 257-275.
- García Álvarez, Ana María (2007) ‘Evaluating Students Translation Process in Specialised Translation: Translation Commentary’,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7: 139-163.
- Hu, Ke and Patrick Cadwell (2016) ‘A comparative study of post-editing guidelines’, *Baltic J. Modern Computing* 4(2): 346-353.
- Pérez, Celia Rico (2012) ‘A Flexible Decision Tool for Implementing Post-editing Guidelines’, *Localisation Focus* 11(1): 54-66.
- Pym, Anthony (2013) ‘Translation Skill-sets in a Machine-translation Age’,

Meta 58(3): 487-503.

Strauss, Anselm L. and Juliet M. Corbin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Thousand Oaks, CA: Sage.

<인터넷 자료>

Densmer, Lee (2014) 'Light and Full MT Post-Editing Explained'. Available at <http://info.moravia.com/blog/bid/353532/Light-and-Full-MT-Post-Editing>

Mesa-Lao, Bartolomé (2013) 'Introduction to post-editing — The CasMaCat GUI'. Available at http://bridge.cbs.dk/projects/seecat/material/hand-out_post-editing_bmesalao.pdf.

O'Brien, Sharon (2010) 'Introduction to Post-Editing: Who, What, How and Where to Next?'. Available at <http://amta2010.amtaweb.org/AMTA/papers/6-01-ObrienPostEdit.pdf>.

TAUS (2010)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Guidelines Produced in Partnership with CNGL (Centre for Next Generation Localisation)'. Available at <http://www.translationautomation.com/guidelines/machine-translation-post-editing-guidelines>.

[Abstract]

**How Do Undergraduate Trainee Translators Interpret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Guidelines?
A Case of the Chinese-to-Korean Papago Translation**

Hae Rhim Kim
(University of Ulsa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undergraduate trainee translators interpret guidelines for Chinese-to-Korean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To this end, 15 undergraduate trainee translators were asked to perform Chinese-to-Korean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with two different types of text (a report and a speech). The machine translation engine used was NAVER Papago. After that, retrospect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ur students who had written commentaries on their own translations. Results show that some explanations of syntax and punctuation needed to be omitted, while some explanations of lexis needed to be revised to the level that students can understand. It was also found that students needed not only theoretical descriptions of editing criteria but examples of how the criteria can be applied in practice. It was thus necessary to add specific and detailed examples to items that students felt confused, such as style and consistency.

Keywords: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guidelines, retrospective interview, undergraduate trainee translator, Chinese-to-Korean translation, Naver Papago

주제어: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회고인터뷰, 학부생 번역, 중한 번역, 네이버 파파고

김혜림

울산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조교수

hrkim1007@ulsan.ac.kr

관심 분야: 포스트에디팅, 통번역교육, 코퍼스번역학, 커뮤니티통역

논문 투고: 2023년 2월 8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3월 7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3월 15일

게재 확정: 2023년 3월 26일